

50 점 받는 학생이 수능 시험 3 달 전에 단어를 외우는 게 도움이 될까요?

삼수하는 남학생이 수능을 3 개월 앞두고 저에게 왔습니다. 3 년 동안 50 점에서 변화가 없으면서 광고도 하지 않는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습니다. 단어를 많이 모른다면, 단어 책 1 권을 구입해서 왔는데, 제가 달라고 해서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. 절대 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버렸더니, 놀래서 눈이 툭툭해지더군요. 그런데, 이 학생이 일주일에 3 시간씩 4 번 공부하고 나더니, 10 점이 올랐답니다. 또 4 번 공부하니, 10 점이 오르고, 또 4 번 공부하니 수능에 86 점인지 87 점인지 받았다고 합니다. 4 번 더 올 시간이 있었다면 96 점은 받을 수 있었는데, 아쉽더군요. 이 학생은 단어를 외우지 않았습니다. 수능은 문단 하나, 문제 하나인데, 50 점 받는 사람이 수능 시험 3 달 전에 단어를 외우는 게 도움이 될까요? 단어를 외워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,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

‘단어를 많이 알면, 영어를 잘할 수 있다’라고 믿는 분이 너무 많아서,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.

**단어는 언제부터** 외워야 하는지, 그리고 **독해**라는 것은 무엇인지 2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단어는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을 때부터 외워야 합니다. 생각해 보세요.

단어 + 단어 + ... = 문장. (O/X)

사랑하는 아들이 혹은 딸이 “엄마, 밥 주세요.”라는 말을 영어로 해보고 싶어 합니다.  
그런데, mom, rice, give 만 외우면 되나요?

단어와 단어가 모이면, 정말 문장이 됩니까? 아닙니다.

무엇이 빠졌죠?

단어 + 단어 + ... + **문법** = 문장.

네, 단어에 문법이 더해져야 문장이 됩니다.

문법을 모르면, 문장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. 깊이 있는 문법이 아니라, 정말 간단한 **기초 문법**만 알면 됩니다. 대신,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.

‘단어를 많이 알면, 영어를 잘할 수 있다.’고 알고 있는 학생은 주어 동사부터 틀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중학교까지는 잘 몰라도 외우면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교과서를 좀 외우면, 90 점도 넘습니다. 그런데, 이 상태로 고등학교에 가면, 바로 점수가 확 떨어져 버리고, 좀 더 지나면 50~60 점대로 떨어져 버립니다. 교과서, 문제집, 프린트, 이런 걸 다 외우면, 70 점대까지는 올라갑니다. 학교에 따라 80 점대까지도 올라갑니다. 그런데, 이게 한계입니다. 이런 학생들을 만나면, 참 불쌍합니다.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버릇이기 때문에 고치는데, 애먹습니다.

많이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간단히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. 기회가 되면,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

여하튼, 간단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학생이 단어를 외워야 합니다.

두 번째는, 독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단어를 익히는 방법도 배우고, 독해라는 말의 뜻도 알아보겠습니다.

독해는 영어로 무엇이죠?

Reading 은 독해가 아니라, '읽기'입니다.

Reading 도 설명을 좀 할까요?

'읽는다'라는 말은 2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.

read = understand + remember

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읽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. 읽을 때는 잘 이해했는데, 책을 덮는 순간 읽은 것을 다 까먹어 버린다면 읽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. 상식입니다.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읽는 것입니다.

그럼, 독해는 무엇입니까? 독해는 영어로 reading comprehension 입니다.

단어를 외울 때는 관련된 단어도 함께 외워야 합니다.

comprehension (n.) – comprehend (v.) – comprehensive (adj.) / comprehensible (adj.)

comprehend: 이해하다

understand: 이해하다

이렇게 외우면 충분한가요?

아닙니다. 단어가 다르면, 뜻도 다릅니다. 한국어에 적당한 단어가 없다고 해도 정확하게는 뜻이 다릅니다.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?

comprehensive 는 한국어로는 '많은 것을 포함하는' 좀 더 고급스럽게는 '포괄적인'의 뜻입니다. 즉, comprehend 는 단순히 understand 정도가 아니라, 이것저것 관련된 많은 것들을 포함해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. 그럼, comprehensible 의 뜻도 '많은 것들을 포함해 이해할 능력이 있는' 정도 됩니다. 관련된 단어를 같이 외우니까, 훨씬 더 단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죠?

Reading comprehension 은 읽은 글을 단순히 한국어로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,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읽은 말이 결국 무슨 말인지를 파악해내는 능력입니다. '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.'는 글을 읽었으면,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.

수능시험부터 이 보다 더 어려운 시험은 reading comprehension 시험이기 때문에 단순히 단어 어려운 것 몇 개 더 안다고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. 예를 들어 대학교를 졸업한 원어민들에게 pedagogy 더 쉽게는 internist 의 뜻을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. 이런 사람들이 글로벌기업의 중역이고, 연구원입니다.

필요할 때 써먹지 못하는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.

정리하면,

하루에 단어 10 개, 혹은 1 주일에 10 개씩 단어를 외우는 것은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준이 된 후에 해야 합니다. 그리고, 외울 때는 관련된 단어도 함께 외워야 합니다. 잘못 외우면, 고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.

이 웹사이트에 있는 영문법 개론은 국내 최고의 기초문법 강의입니다. 공부하세요.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.

reshare.com